

과거불 집착 말고 현재불 찾아라

부처님오신날 듣는 큰스님 법문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불자들이 낡은 의식을 일깨워 늘 새롭게 태어난다면 날마다가 부처님오신날"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오신날 스님들이
등 내주고 돈만 받지 말고
신도들이 직접 만들어
정성껏 올리도록 가르쳐야**

여하즉시(何何即是)오
위음왕불(威音王佛) 출세전(出世前)에 걸각니우설리
안(折角泥牛雪裡眠)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음왕부처님이 나기 전에 뿔 꺾인 소가 눈 속에서
잔다 하리라.
오늘 대중은 과거불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몸 속에
있는 현재불을 찾으라
대중은 옷 입을 때 옷 입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오래 오래 공부하면 화두밖에 다른 망상이 없어
부처 되고 조사 되는 것이 세수하듯 코 만지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이 말 뿐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해서 사방에서 법문을 해달라고 하지
만 이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과거불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몸 속에 있는
현재불을 찾으라는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 있거든.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해봐
야 맛을 보지 않겠소? 그런데 온통 말뿐이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야.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일러주시는 분이 부처님인데 지
금 불교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불교 믿으면 계급도 올라가고 회사도 잘 된다니니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
들로 온통 떠들썩합니다. 물론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사랑발림
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게 다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이 다 인줄
알고 공부할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 길도 없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
어요. 자다가 남의 다리 굽을 것 없이 '자기 몸 속에 있는 현재불을 찾아라' 라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1>



부처님 탄생이야기

붓다의 탄생을 전해 주는 문헌은 풍부하다. 들
론 이런 문헌들은 붓다의 사후 상당한 시간이 경
과한 후 형성된 것들이다. 시기별로 탄생 전설의
내용이 조금씩 발전하여 가는데, 이러한 변화는
붓다 라는 한 위대한 스승에 대한 존경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비례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붓다의 정신적인 정각이라는 한 가지 핵심은 변
화하지 않고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숫타니파타>를 중심으
로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숫타니파타>에서 사리뿔타는 붓다가 이 세
상에 태어나기 전 도솔천에 있었다는 것과 탄생
후 붓다의 지혜 광명으로 모든 무지의 어둠을
몰라치고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을 노래
하고 있다. 붓다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기 전 도솔천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불전 최초로
부터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 같다.
붓다가 머물고 있던 도솔천이란 어떠한 곳일
까? 도솔천은 불교의 우주론에 의하면 육계에
속하는 천계이다. 인간계 바로 위에 사천왕천.
삼십삼천. 아마천이 순차적으로 놓여있고 아마
천 바로 위에 도솔천이 있다. 도솔천은 천상 세

들 중 가장 높은 자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동물
의 군주인 사자처럼, 그는 선인이라는 동산에서
법륜을 굴릴 것입니다.”
삼십천의 신들로부터 미래의 붓다가 인간계
에 탄생했다는 말을 들은 아시타는 솟도다나왕
의 처소에 가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된다. 어
린 아이의 행동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자
태를 보고 아시타는 행복하였다. 신들은 천계의
살로 이루어진 일산을 공중에 펼쳐 놓고 황금 손잡
이의 부채를 상하로 부쳤다. 아시타는 어린 아
이 머리 위에 펼쳐진 하얀 일산을 보고 열은 붉
은 색의 모포 위에 놓여 있는 보석 같은 어린 아
이를 보며 기뻐했다. 베타의 주문과 점상에 정
통한 아시타는 어린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외쳤다. “이 어린 아이는 최상의 존재로 인간 중
에서 최고이다.”
아시타는 자신의 입박한 죽음을 느끼며 눈을
흘리자 주위 사람들은 걱정하며 어린 아이에
게 무슨 불길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아시타는
자신은 이미 늙어 어린 아이가 장성하여 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뿐이
라며 어린 아이의 미래를 예언했다. “이 어린 왕
자는 최상의 정각에 이를 것입니다. 가장 청정
한 것을 보고 많은 대중들의 이익을 위한 자비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위해 붓다 탄생 힌두교인이 섬기던 신들 붓다 탄생 찬미

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진다. 미래의
붓다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경건한 불자들은 그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게 된다. 미래 붓다의 어
머니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솔천이라
는 이름은 즐거움이 가득차 있다는 의미이다.
<숫타니파타>의 다른 부분에선 붓다의 탄생
과 관련한 아시타(Astita)라는 선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
다. <숫타니파타> 중 나라카라는 소재목 하에
45개(679-723)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부분만 요약하기로 한다.
아시타(Astita)는 선정 중에 삼십천의 신들이
그들의 주신인 인다(Indra)를 찬양하고 깨끗한 옷
을 흔들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 악신인 아
수라들과 싸워 이겼을 때 조차도 이처럼 기뻐하
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
워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메르(Meru) 산의 정
상에 살고 있는 신들은 대답한다.
“비밀 바 없이 훌륭한 보살이 사람들의 이익
과 행복을 위해 인간 세상에 석가족(Sakya)의 마
을인 룸비니에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도로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그는 모
든 중생 중 최상이고 탁월한 자이며 모든 사람

심을 갖고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성스러운 삶은 널리 찬양될 것입니다.”
이상 붓다의 탄생 전설이 불교인들에게 무엇
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고찰해 보자.
먼저 천상의 신들이 보살의 탄생과 붓다의 탄
생을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타가 신
들로부터 붓다의 탄생을 듣고 어린 왕자를 조사
해보고 그의 미래를 확인했다. 결국 탄생전설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붓다의 탄
생은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것이라는 점
이다. 중생 구제라는 이타행으로서 붓다의 탄
생을 찬미하기 위해 천상의 신과 아시타 선인의 등
장이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붓다의 탄생을
기뻐했던 삼십천의 신들과 그들의 주신인 인다
는 불교의 발생 이전에 이미 힌두교인들에 의해
신앙되던 신들이다. 이런 것들은 붓다의 탄생을
더욱 찬양하기 위하여 그리고 불교가 힌두교보
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 보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야 부인의
백상 태몽, 우협탄생, 탄생 직후 일곱 걸음, 탄생
계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요
소들은 다음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교수

석주 큰스님의 병풍

단 한번의 기회!!
석주큰스님 글씨에 있는 팔상도8폭병풍에는
고유한 일련번호가 주어집니다.
1,000점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 보문복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한정제작 -

살아계신 한국현대 불교사로 추앙받고 있는 칠보사, 봉은사 조실 강석주 큰스님.
사대부중 모두가 존경하옵는 큰스님의 반야심경이
청곡화백의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를 여덟장면의 중요부근으로 그림에 옮긴 팔상도와 함께 양면표구되어 불자들에게 보급됩니다.

(앞면)석주큰스님의 친필 반야심경(영인본)

(뒷면)청곡화백의 팔상도

김선원 선생의 사영수도자기

KBS-TV 진품명품 고서체 김정우영(이)이며
이시대 최고의 서예가(이)이며 한학자(이)신
매산 김선원 선생께서 8부(부)로 장성을 다하여
싸우신 사영수 도자기. 7원(원), 봉(봉), 산(산), 운(운)

고당스님의 친필 달마도

30년간 수행정진의 감동적인 고당스님의 달마도는
행운의 달마도로서 액운을 막아주고
상승(升)을 발원시켜 받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달마도.
(※ 작품만 드립니다.)

팔상도8폭병풍 (석주큰스님 반야심경)
매산 김선원선생의 친필 사영수도자기
고당스님 친필 달마도

~~869,000~~ → **395,000원**

※ 개별 구입도 가능합니다.

보문복지원 대행 : (주) 명성이앤씨
문의전화 : 02-424-9901

요약

- ▶ 당대(當代) 제일의 법력과 학력을 가지신 석주큰스님의 좋은 글씨를 널리 알리고 여러사람이 소장하여 보고즐길수 있도록 합니다.
- ▶ 부처님의 일대기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덟장면을 활기참고 친근한 그림으로 나타낸 팔상도를 널리 보급하여 불교의 진리를 제단고 생활의 귀추가 되게 합니다.
- ▶ 총 11장인 영지음 송곡리 200. 보문사 산하 보문복지원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KBS-TV 진품명품 감정위원(이)이며 이시대 최고의 한학자(이)인 매산(梅山) 김선원 선생께서 친필 사영수도자기를 좋은일에 공헌하시기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 ▶ 우리나라 선사(先)의 대가(代)인 선필 고당(高堂)스님(스님)께서 직접 그려신 달마도를 내놓으셨습니다.

는 말뜻을 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스스로가 정리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앞뒤를 살필 줄 알아라' 이 말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칼 가는 사람이 칼을 보고 칼을 갈아야 되겠는지 아니면 먼 산을 보고 갈아야 칼이 잘 갈리겠는지? 차를 운전하든지 걸어 다니든지 똑같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아는 사람과 행들을 잡고 좌우를 잘 살피며 가는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헛다디지를 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말고 웃 입을 때는 웃 이는 것만 생각하고,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그 눈을 명명백백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법문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프랑스 유명 잡지사 편집장이 탁нат한 스님에게 취재를 부탁하자, 탁нат한 스님은 곧바로 취재에 응하지 않고 일주일동안 함께 머물며 똑 같이 수행해본 후에 대화를 나누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스스로 체험해보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부처로서 변함 없이 이어져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밥은 오래 씹을수록 맛이 있고 한가지라도 자주 되씹다보면 나라는 존재성, 내 갈 길을 내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내 갈 길은 내가 찾게 되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의지할 수록 자꾸 멀어져 갑니다. 죽자살자 내가 개척한다 하고 가면 빠른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하면서 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이 어떤 분이요 어떤 가르침을 남기신 본인지에 살펴 보고 그 길을 따르려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처님오신날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당장 밥 한그릇 못 얻어먹고 쫓겨나더라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지금 한국의 부처님오신날은 꼭지 예뻐, 지 할애비 생일 받아먹는 형국입니다.

등 다는 것만 해도 아무 스님이 계시는 절에 내가 대접을 위해서라도 한 등을 올려야 안 되겠나 하니 그게 어디 공덕이 있었습니까? 정녕 부처님 생일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으면 신도들한테 정성껏 등을 만들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도록 하면 됩니다. 등을 내주면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바르게 만들든 엉터리로 만들든지 신도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처님 전에 성의 있게 올리는 정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까치지 않는 정성의 등불, 마음의 등불을 밝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스님들의 할 일입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반자일등(寶者一燈)의 가르침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만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요? 오늘이 분명해야 내일도 분명해 집니다. 그러나 오늘이 똑똑치 못하면 내일도 그렇게 맑고 간다 이 말입니다. 사월 초파일은 부모 생일날과 같은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 생일이니 우리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주지스님이 어디 가서 탁발해다가 신도들을 먹이면 좀 어떨습니까?

내가 스님 된 것도 부처님 덕인데 아무리 우리 절이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나한테 찾아오는 신도들 내가 밥 한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러한 어른이다' 라는 말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등 같은 얼마나 들어왔나 따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소리하면 '저 스님이 남의 발뽀 다 깨네' 하고 야단칠일 겁니다. 하하하!

의식을 바껴야 합니다. 의식이 깨어나야 변화가 옵니다. 달라지라마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 받은 상금 전액을 아프리카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기자들이 "당신네도 나라를 빼앗기고 난민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에 주느냐?"고 질문을 했

"당신이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처럼 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 난민이 많다고 하지만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는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금을 아프리카로 돌리는 것이 이 상을 제정하고 상금을 주는 취지에 합당한 것이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 인간이었습니 다. 그리고 우리도 다 인간 아닙니까? 절대 남의 힘 빌리지 말고 인간의 자리를 찾으려 하라 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으니 지옥이니 극락이니 자다가 남의 다리 굽는 소리 그만하고, 인간의 기본을 새롭게 하고 의식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해 보자는 말입니다.

'오래 된 길'의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부처님께서는 다만 '오래 된 길'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길을 정비하시어 사람들을 가게 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의 무지몽매한 의식을 일깨워 인간 정신의 황무지에선 탐욕을 길어내고 어리석음을 뽑아 내어서 거기에도 씨 뿌릴 준비를 마친 분입니다. 대지를 경작하는데도 적당한 비와 햇볕과 때에 맞는 거름, 제조작업이 필요 하듯이 인간 정신의 경작도 그와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잘 지켜보고 악을 막는 일과 선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나쁜 버릇을 없애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 나가는 것이 계의 기본 정신입니다. 무릇 불교인들은 넓은 의식을 일깨워 늘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 매일이 부처님 생일이요, 우리의 생일입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항상 편안한 웃음으로 신도들을 대하는 보성스님.

내 갈 길은 내가 찾는것 스스로 체험해야 달려져 참 불자라면 넓은 의식 깨워 늘 새롭게 태어나야

기자가 된 보성스님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된 보성 스님의 얼굴에는 검은 딱지가 가득했다.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딱지다.

"스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햇빛을 너무 봐서 알레르기가 생겼어."
송광사 뒷밭에서 장시간 일을 하신 탓이다.
"일꾼한테나 젊은 스님들한테 맡겨 놓으시지요."
"제대로 해야 말이지. 하도 답답해서 옷통 벗어 놓고 했더니 노인 얼굴이 이리 돼 버렸어. 이것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니 부속품들이 여기 저기 고장이 잦아서 정비소(병원)에 다녀야 할 형편이야."
스님의 말씀은 늘 웃음을 자아낸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숨 쉬지도 말아야”

"일하기 싫으면 가서 낮잠이나 자겨라. 그리고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아라"는 말로 후학들을 이끌어온 스님의 세수는 77세(1928년 생)이다.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스님은 50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4, 5, 6, 7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1997년에는 조계종립 방장에, 12월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원으로 추대됐다. 2002년 10월 전계대화상에 추대되어 계율을 바로 세우는데 진력하고 있다. 언행으로 대중들을 이끌고 있는 스님은 "부산에 와서 지내는 동안 송광사 대중들이 좀 편안한 거

야. 잔소리를 안 하니 내가 밥맛이 좋다"고 웃어 보였다. 말씀과는 달리 스님은 매일 송광사에 전화를 걸어 대중들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기신다. 또한 스님은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음이 생긴 것이며, 불국사가 불국사봉사단을 결성해 수재민을 도운 것 등 종단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고 계셨다. "이제 국제화 시대야.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 제대로 해야 해. 모두들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한 가지라도 두터운 생각으로 부처님을 따르다 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땅도 거름을 잘 해주면 열매도 심하게 많이 열리듯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것 이상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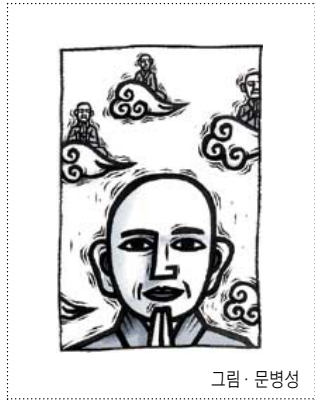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암 스님 (3)

하안거와 동안거, 나고 죽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년 중 육 개월은 고즈넉한 도량에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한다. 해인사는 안거가 시작되면 공부하는 스님들이 안거기간동안 대중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율원장스님을 모셔서 발우 공양 등 여러 가지 습의를 실시한다.

그럴 때 마다 대중은 율원장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난 후 위의를 행의를 율원장 스님으로부터 배운다. 혜암 스님은 이 자리에 꼭 참석해서 대중들과 함께 율원장스님께 삼배를 올린다. 율원장인 종진 스님은 어른스님께서 참석하신 것만도 송구한데 삼배까지 받게 되니 좌송한 마음에 어른스님께서서 그냥 앉아 계시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는 율원장스님이 법사이니 패념치 마시고



그림·문병성

평소처럼 습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면서 습의가 끝날 때 까지 대중과 함께 한다.

강원 학인 대중들은 물론 상한 스님들도 빠지고 싶어 하는 게 안거 습의인데, 스님은 산중의 최고 어른이면서도 대중규약은 철저히 지키니 공부분위기 만큼은 자연스럽게 모범적으로 만들어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대중과 함께하는 동사십 정신은 방장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해인사는 안거 기간동안에 모든 대중이 일주 일간 잠을 안자고 좌선을 하는 용맹정진을 한다. 용맹정진은 산내의 모든 대중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법문 날 법상에 오른 혜암 스님께 서, 내 상좌가 선방에 용맹정진하러 이제는 오려나, 이제는 오겠지 하고 기다려 봐도 오지 않자 내 상좌가 강원예 있는데 한번도 용맹정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공표를 했다. 물론 당사자인 나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법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 스님을 항상 가까이하니 언젠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합리화와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일 텐데 하는 해태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은사스님은 습의시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상좌는 법문 날조차도 보이지 않으니 공부는

차지하고라도 마음상태가 글렀다고 판단하시고 대중에게 공표해서 내 마음의 내태함을 잡아 주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도량에서 만나보면 늘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던 뒷방의 노스님들부터 반응이 사늘했다. 산내 암자에서 정진하는 비구니스님들은 두말이 필요 없을 만큼 냉랭했다.

내가 강원예 있으면서 용맹정진을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아니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에 가게 되면 수 없이 하는 게 용맹정진인데 왜 학인이 선방에 올라가야하나?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용맹정진해야 할 정도의 발심도 못했다. 또 용맹정진하고 내려오면 그 후유증도 심했다. 학인들은 체 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한달정도 강원공부에 지장을 초래했다.

혜암 스님은 대중초소에 살면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한다는 철칙을 갖고 계시고 당신은 자리에 누울 때 까지 실천에 옮겼다. 방정소임을 볼 때도 대중과 함께 용맹정

산중 최고 어른이면서도 안거 습의 꼭 참석 모범 보여

진 했고, 종정 소임을 볼 때도 원담암 대중선방에서 손수 죽비를 들고 경책하셨고 법문도 하셨다.

자운, 성철, 혜암, 일타 스님 등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불교계의 선지식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현대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신데 있다.

성철 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모셔왔던 분이 자운 노스님이였다. 그러면서 후배인 성철스님이 총림을 다스리는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시는 부산 감포사로 거처를 옮기셨다. 또 성철 스님은 자운 스님께서 언젠든지 오셔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청풍당이라고 이름 붙인 요사채를 지어서 항상 깨끗하게 비워 두었다.

자운 스님께서 청풍당에 오셔서 쉬는 모습은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두 분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했다. 하나같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정겨운 모습뿐이다. 혜암 스님은 이렇게 정정하고 거룩한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깨달음을 향해서 전철과 같은 공부로 일생동안 굳건한 마음으로 실천해 냈다. 그 분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인식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도반들과 후배들을 아끼기 좋아했다. 그 결과로 법맥을 사람으로 이어 나갔다.

우리는 불교를 무엇으로 이끌어 나가야할까. 신심이 텅 없이 부족한 나로서는 격정이 태산같다. 산으로 다시 돌아가 한철 기도한 후애나 바로 보는 눈이 제대로 잡힐 수 있을까?

■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소원하는바 모든 일이 원만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조 실 석 주 정 일
주 지 설 담 원 혜

청정공덕회(신도회)일동

(우)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 02)511-6070, 팩스544-2141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의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봉은학림 선가귀감 강좌 법회 안내

선종 수사찰의 전통을 간직된 봉은사에서선 선수행 전통을 계승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현대인들에게 감로를 제공하고자 을 갑신년 한해동안 참선과 관련된 법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종 최고의 경전인 육조단경을 참구하는 육조단경 논강을 성원리에 개최한 데 이어 하안거 동안 한국불교 최고의 선서(禪書)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禪家龜鑑)' 강좌 법회를 봉행합니다. 갑신년 하안거를 참선에 대한 참구로 이끌어갈 이 법회에는 우리시대 최고의 강백 가운데 한분이신 통광스님을 어렵게 모셔 다시 듣기 어려운 소중한 법연을 마련하였으니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기 간 : 6월 13일(일) ~ 8월 29일(일) 매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1시
- 장 소 : 봉은사 법당루
- 강 사 : 통광스님
- 문 의 : ☎02)3218-4811~5 (포교·교육팀)